

“생각 샷되면 작품도 엉망돼요”

산문박의 禪

조각가 류종민 교수



“조각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하나의 형상으로 깎고 다듬는 것이죠. 그 무엇을 조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만의 은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업장에 있을때면 내가 있다는 존재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노력합니다. 완전한 무아의 경지에 빠져버리기 위해서 말이예요.”

그러나 조각을 하는 동안 조각가 류종민교수(중앙대·54)는 자신의 마음 자리만큼은 서술이 시퍼렇게 지켜가고자 애를 쓴다. 자신의 본원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나름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평범 빛어내자’ 가 화두

“작업중에 잠시잠깐이라도 샷된 생각에 자리를 내주면 안되요. 열려없이 작품은 본원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일까? 그의 작품속에 나타난 세계는 언제나 가장 평범하면서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신재벽의 법당에서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불성 덩어리가 솟아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일에서 그의 예술혼은 생명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그 살아있는 예술혼은 그대로 그의 작품 속에 침투돼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는 작품을 굳이 부처의 세계와 접촉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불교를 불교라는 언설로 딱부러지게 선을 그어 표현하지 않듯, 그저 그의 신앙세계와 일맥상통하는 그 나름의 선(線)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가 돌이건 나무건 브론즈건 재료에 구애되지 않고 작품을 빛어낼 수 있는 것도 세상사를 딱딱 부러지게 구별하지 않는 ‘달관한’ 성격 때문이다.

평범을 빛어내는 예술의 세계, 그 세계는 류종민에게 하루 아침에 딱딱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신념이 그의 작품 속에 투영되어 집착없는 무중력 상태의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지난 93년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천

‘상아닌 상’ 다듬기 금강경 수지독송하며 실습 ‘천강천월’ 테마 붙들고 6년작업 ‘완성향한 닦음’

류종민은 한동안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발표해 동료들을 당황하게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류종민교수의 내면세계, 즉 그의 인간적 원형질은 불교와 인연이 되면서 작품으로 승화됐다. 신심돈독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알게된 <금강경>은 그로하여금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알음알이가 얼마나 보지 못한 것인가를 깨닫게 했다.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는 일은 이제 내게 있어서는 한 호흡이 되었고, 내 생명을 운용해 가는 리듬이 되었어요. 작업장에서 금강경을 맞으면 독송하다가 해가 뜰 때쯤 법당에 올라가 독송할 때가 있는데 그때 법당 주위로 어디서 새들이 울러와 지저귀죠. 그 순간 느끼는 환희는 마치 부처님이 쏟아부어주는 것 같아 형언할 수 없습니

다.”

강천월(千江千月). 천개의 강에 비추인 천개의 달의 의미를 조각품으로 형상화하면서 류종민은 평범을 빛어내는 데 일생의 화두를 걸었다.

“일체법이 있는 모든 법은 꿈이며, 환(幻)이며 물거품이지. 그리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다(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고 할 수 있지.”

류종민은 가장 요묘한 예술도 결국은 평범함이라고 말하며, 천강천월은 그 관점에서 봐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현상계 또한 본질이 투영된 것이 아니가요.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비칠 수 있는게 하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니까요”라는 질문에 “강에 비추지는 달이 환(幻)만은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겁대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환 뒤에 감춰진 본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천의 생명, 천의 인식이 본원에 닿아 있는 것을.” 류종민은 우문현답(愚問賢答)을

내놓았다.

돌대 위에 앉아 물위에 찌개지는 달빛을 보다가 하늘 위로 등그런 하나를 본다 다르지 않게 다른 본체와 환영 내 의식이 그것을 만들 뿐 실은 본체와 환영의 유별도 없다 물속에 전개된 하늘은 하늘이 아닌가 천의 강, 천의 빛살은 본체가 아닌가 달의 어느 빛이 본원이라 하겠는가...

텅빈 곳에서 진리 찾기

그의 작품에는 현실을 초월하는 정신세계뿐 아니라 정신을 초월하는 현실세계가 공존한다고 평론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까닭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어느 한편에서 서서 경계를 없애려는 예술가가 아니라 안과 밖, 갈과 속, 이쪽과 저쪽에서 동시에 경계를 없애나 가려는 마음에서 그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천강천월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6년이 넘게, 아니 무한정이라도 붙들고 깨내겠다는 다부진 의욕이 온몸에서 솟구치고, 있는 조각가 류종민교수는 자기완성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

“오늘날의 작가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없는 것이 마음이라면 있는 것이 오히려 겁대끼이기 때문이죠. 있는 이대로의 상태에서 없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텅빈 곳에서 우주와 인간의 진리를 찾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금강경에 ‘不取於相’이라 했다가. 조각가는 그의 작품 속에 상을 담기 마련이다. 체념이나 포기없이 새벽의 기운이 움트는 새벽 3시엔 늘 금강경을 독송하는 일관된 마음으로 작품에 임해 온 조각가 류종민은 다듬고 깎으며 작품에 상을 담으면서 도대체 어떤 상 아닌 상을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도필선 기자



산화·이기선

하나되는 마음에서 ‘빛’ 나투네

현대불교의 독자에게 60회 동안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귀한 지면을 빌려 써 보았다. 문필의 재주가 미약하여 좋은 글을 보내지 못해 독자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글은 인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인격을 송두리채 벗겨버렸다. 자신이 되어 겨울 햇살을 받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주변의 공기가 차고 시리어 얼어붙은 몸통이 되어 동상으로 병들었다.

다시 봄이오고 따뜻하게 되면 좋은 얼굴로 독자들을 만나 볼까 한다.

화엄 바다에 나선 신재벽 찬바람

춧불 가물거리게 하는 물결 통해 햇살이 비로광명이라

우리 모두 새해 한손 천손 만만 손 하나로 합장하며 통일이며 일심을 화합이며 정의를 정정이며 평등을 원만 성취하기를 비움은 손 마음 하나이라

한손 천손 만만손 화엄바다에 나선 찬바람처럼 비로광명이 되어 온 법계 우주살토 극락으로 화광세계도 정업하고 화합하세

나는 불교의 우주관을 숭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조그만 지구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나락이 얼마인 가. 매일 매일 죽고 부수고 하는 싸움과 질곡,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아수라의 몸부림,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삶이라고 하니 신재벽

찬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바람을 들고 비로광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인간은 무지하고 우매하다. 그 무지와 우매로서 난폭한 폭행을 일삼는다. 새벽바람에 찬바람을 들고나와 저 우주를 바라본다. 경이로운 묵음이

서 피어오르는 연꽃이며 전 단향이다. 마음에서 피어나지 않는 연꽃, 전단향이 없다면 지옥이고 나락이다. 아침이면 합장하고 낮이면 절하고 밤이면 기도하자.

한마음 되기를 원세우고, 정의가 이룩되게 참회하고, 평등을 맞잡는 여정을 올리자. 일심보다 좋은 마음이 어디 있으며, 정의보다 빛난 햇빛이 어디 있는가. 사람 사람 모두가 평등으로 사는 길이 아늑다사막삼보리이다. 무상정등정각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더 위없는 것은 최상중의 최상이다. 최상은 으뜸이다. 으뜸은 하나이다. 하나는 절대가 아니라 무등등의 세계이다. 이것이 정등이다. 정등은 바로 한가운데인 평등인 것이다. 이 평등의 마음이 하나로 알게되고 사무친 자리가 깨침이다. 우리는 확

철하게 깨친 자리에서 비로광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 광명의 여래성이 밖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빛은 나의 마음에서 투광되는 광파(光波)라고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독자와 열마만큼 하나되었는지 모른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하여 나의 마음속에서 여래의 빛이 솟구쳐 오르게 되면 연꽃열에서 우렁이 될 것이고 전단향 뒤에서 지하늘이 될 것이다.

“오늘의 불교” 이것은 어제와 내일을 이어가는 지금의 점이다. 이 점이 태양의 광성(光性)이 되어야 한다. 빛이 축적되면 오늘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읽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대불교의 모든 분들에게도 합장한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60 · <글>

광명(光明)

“통일이며 일심을 화합이며 정의를 정정이며 평등을”

1996학년도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출강 법사교육 신입수강생 모집

◇ 부처님 교법 따라 포교·정진·행동하는 대승의 법사!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자격고시 거쳐)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10-1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 737-5305
FAX : (02) 720-1836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불교학문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발전과 정토사회구현을 위해 포교활동하는 불교지도자적인 대승의 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996학년도 신입생 모집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영연방 대학소속의 세계적인 명문 스리랑카 정규 불교대학교의 학위 과정을 국내에서도 이수하게 됩니다.”

- 강의는 국내에서, 졸업은 스리랑카 본교에서
- 수능시험 응시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

수업연한	학 과	과 목 명	특 전
4년	불교사회철학 (Studies in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① English ② Pali ③ Philosophy (I II III IV) ④ Buddhist Social Philosophy ⑤ Emergence of Buddhism ⑥ Buddhist Social Institutions ⑦ Early Buddhism ⑧ Buddhist Education ⑨ Buddhist Aesthetic concepts and Arts ⑩ Expansion of Buddhist Culture (I II) ⑪ History of Indian Buddhism ⑫ History of Korean Buddhism, etc.	①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에 따른 ② 졸업후 영연방 및 외국의 모든 대학원에 유학 가능함 ③ 지방에서도 통신에 의해서 학위과정 이수 가능함 ④ 어학 연수 가능 ⑤ 승려는 장학금 지급 ⑥ Computer 교실 운영

- 모집인원 : 80명(주간: 40명 야간: 40명) 통신생 약간명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타종교인도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시
①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무시험 전형) ② 면접 : 1996년 3월 2일 13시
- 원서접수 및 교부 (우편도 가능)
① 96년 1월 19일 (금) ~ 96년 2월 26일 (월) 17시까지
교부 및 접수 :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제1학사 관리처 2층
- 문의전화 : (02) 424-6637~8 / FAX : 424-6639

Buddhist and Pali University of Sri Lanka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한국학사관리처